

## 메달 레이스 점화... 광주가 뜨겁다



광주세계수영대회

경영·하이다이빙 시작  
 관중석 연일 초만원  
 여자 계영 400m 한국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22면>  
 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노쇼' 등으로 인한 빈 객석이 많아 흥행 저조가 우려됐지만, 지난 19일부터 각 경기장별로 관객들이 줄을 잇는 등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1일부터 대회 주요 종목이자 수영의 '꽃'이라고 불리는 남녀 경영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입장권 매진을 기록했던 하이다이빙 경기도 22일부터 시작되면서 대회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1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m 예선에서 김서영이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회 주요 종목인 경영은 21일부터 여자 200m 개인 혼영을 시작으로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혼영, 릴레이 등 42개 세부 종목이 8일 간의 일정으로 본격 진행된다. 경영에는 미국의 카엘럽 드레셀(Caeleb Dressel), 영국의 애덤 피티(Adam Peaty), 중국의 쑤양(Sun Yang), '수영 여제' 케티 레데키(Katie Ledecky) 등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이 대거 출전, '스타 마케팅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수영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 혼영의 대표 주자인 김서영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한국 신기록 2개를 갈아치운 인다솔(배영), 광주시 체육회 소속인 백수연(평영) 등 대한민국 간

면서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CCTV와 일본 아사히 TV, 스웨덴의 SVT 스포츠 채널 경기장 에 앞다투어 방송 스튜디오와 중계석을 설치하고 생중계에 나서고 있다.

메인 프레스센터(MPC: Main Press Center)에도 대회 중반에 접어들면서 내·외신 기자 숫자가 300여명으로 늘어났다. 27m(남성)과 20m(여성)의 적절한 높이에서 멋진 연기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는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22일 예선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진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대회가 중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대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말인 20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부대 수구경기장에는 총 46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마지막 결승 경기와 갈라쇼가 열린 염주체육관 아티스틱 수영장에도 4300여명의 관중이 찾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수영대회 주요 종목이자 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경영과 이번 대회 최고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하이다이빙 경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회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아로마라이프쥬 제9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32개 팀 참가 9월 1일 개막  
 무등·광일리그 두달간 열전

가하며, 경기력을 기준으로 '무등'·'광일' 2개 그룹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제)가 광주주일부와 함께 대회를 진행합니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의 가을잔치인 이번 대회에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회기간 : 2019년 9월 1일 ~ 11월(매주 토, 일요일)
- 대회장소 :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경기방식 : 무등·광일 토너먼트
-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 대회 및 신청 정보 : 광주일보 홈페이지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다시 원점으로

민·관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 지역난방공사 이사사회서 보류

이 합의안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조사를 시행한 후 LNG 사용방식으로 결정 시 손실보전 방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안에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보전 주체 및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아 배임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집단에너지 열 공급을 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靑 참모들, 수영대회 응원 삼삼오오 광주로

### 문 대통령 "홍행 힘 보태자"

청와대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에 힘을 보탠다. 대회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흥행률이 다소 저조한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응원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참모들은 22일 오후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직접 찾아 응원전에 합류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광주로 출발,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여자 100m 접영·평영 등 단거리 종목을 응원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을 시작으로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해당 수석실 참모들을 이끌고 이번 주중에 광주로 삼삼오오 내려가 직접 응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들의 국내 스포츠 경기 참석은 이례적인 일로,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시간이 있으신 분은 현장에서 응원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부터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기대만큼 흥행을 일으키지 못해 아

쉬운 상황"이라며 "청와대 직원들이라도 흥행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으로 경기 관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4대 불법주·정차 안 돼요!

아니? 누가 이런 곳에 주차를 해둔 거야?

어떻게 내리라고?

누가 모퉁이에 주차를 해서...

꼬마야 위험해!

아휴~ 이런 불법주·정차를 아떡하지!?

이런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먼저, 앱을 실행해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위치를 확인한 후 제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주세요.

위 4대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전라남도  
Jeolla Namdo

전남지방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